자살 직전 전화 통화 "힘들다, 죽을 거야"

■경찰, 최진실씨 충동 자살 잠정 추정

"평소에도 삶 비관… 화장해 산에 뿌려달라"

톱 탤런트 최진실(여·40)씨 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최씨의 자살이 충동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경찰은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목을 매 자살했다는 1차 소견을 얻었다"며 "유족과 매니저 등 주변의 진술, 최씨의 메모, 자살 직전의 통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충동적인 자살'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약물복용 여부 등 국과수의 최종 감정 결과와 보강수사를 통해 끌어낸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수사를 종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공인으로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평소에도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시신을 화장해 산에 뿌려달라고 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자살 전날 매니저와 헤어지면서 '10월3일 개천절이 애들 운동회인데 어떻게 하느냐. 가기 싫다. 속상하다. 애들을 항상 지켜주고 네가 항상 옆에 있어줘'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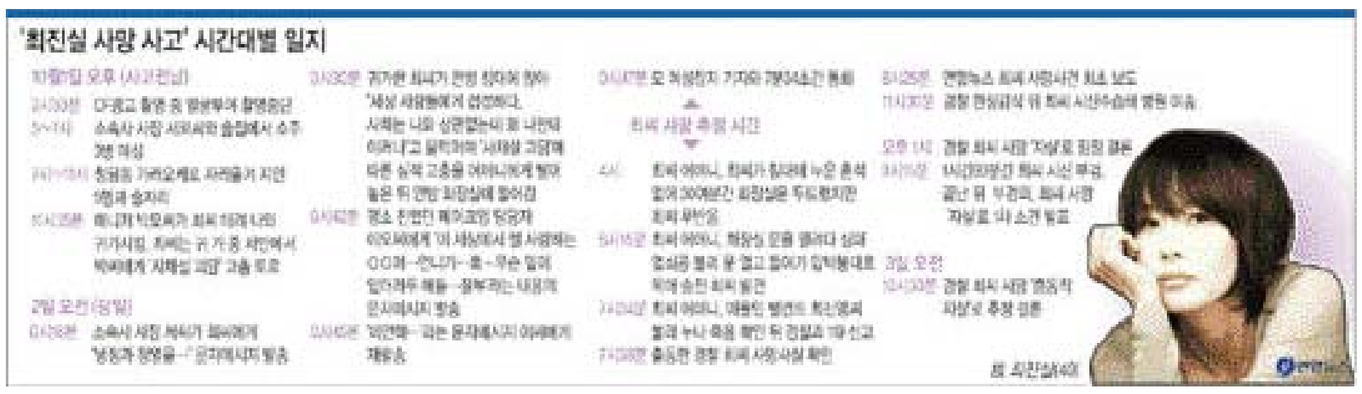
최씨의 매니저는 "최씨가 평소에도 삶을 비관하는 말을 했으며 '내가 죽으면 납골당이 아니라 산에 뿌려달라'는 말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씨가 인터넷에 '사채업 괴담'과 관련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입건된 증권사 직원 A(여·25)씨와 전화통화를 한 뒤 잠을 못 자고 울었던 탓에 약속된 광고촬영을 하지 못하자 소속사 사장 서모씨와 함께 근처 순댓국집에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고 밝혔다.

이후 최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밤 11시께까지 술을 마시다가 매니저와 함께 귀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가 귀가한 뒤 2일 새벽 0시47분께 메이크업 담당자에게 유서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모 여성잡지사 기자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3분 정도 서럽게 울었으며 '죽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힘들다'고 말해 '어디냐. 누구랑 싸웠냐'라고 물었지만 '힘들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다가 중간에 단정적으로 '죽을 거야'라는 말을 했다"며 "'너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하는 거야. 우리 애들 크는 것 잘 지켜봐라'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 최씨 '수첩' 뭐가 담겼나

"난 외톨이·왕따…도무지 숨 쉴 수가 없다"

연예인 고통 빽빽이 기록, 자살 동기 단서 될 듯

톱 탤런트 최진실(40)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최씨가 '섭섭한 세상'의 배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정상급 연예인의 고통을 매일 빽빽이 기록한 수첩 일기장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첩에는 "나는 외톨이·왕따…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등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증상을 알려주는 내용과 하루하루의 활동에 대한 소감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초구 잠원동 최씨 자택의 안방에 보관돼 있던 이 다이어리 형태의 일기장이 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동기를 밝혀주는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5년 전 이혼하고 나서 우울증을 앓게 돼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왔고 최근 '사채업 괴담'이 돌면서 증세가 악화됐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최씨가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 중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최씨가 '사채업 괴담'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입건된 증권사 직원 A(여·25)씨와 자살 전날 전화통화를 하면서 극도로 흥분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최씨가 A씨와 전화통화에서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말을 듣고 A씨에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반박하며 말다툼하다가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심하게 울었기 때문에 얼굴이 부어서 약속된 광고 촬영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씨 매니저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소속사는 최씨가 지난 1일 몸이 힘들어 모 제약회사 광고 촬영을 중도에 그만뒀지만 전혀 이상한 기미를 포착하지는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최씨가 사채업을 했다는 건 현재로서는 전혀 입증된 바가 없다"며 "안재환씨의 사망과 관련해 해당 경찰서에서 관련자들의 통화기록도 조회했지만 연루 정황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의 유족들로부터도 "최씨는 너무 알뜰해서 돈만 생기면 저축을 했다. '사채업 거짓 소문이 아이들 귀에 들어갈까 매우 걱정된다'며 전전긍긍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최씨가 자살 당일 새벽 친하게 지내던 잡지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연예인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최근 너무 힘들다. 죽겠다"라는 내용의 비관을 장시간 되풀이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해당 기자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최씨의 자택에 함께 살고 있던 친척에게 전화통화 내용을 알렸고 가족들은 최씨를 주시했지만 끝내 자살은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씨 오늘 오전 화장… 장지는 양평 갑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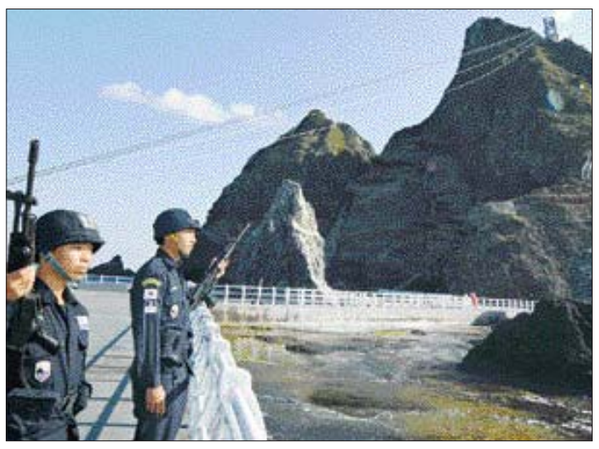
2일 세상을 떠난 탤런트 최진실이 4일 오전 화장된다.

최진실의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 측은 3일 "발인은 4일 오전 8시30분이며 이에 앞서 7시30분 영결식이 열릴 예정"이라며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되며 장지는 경기도 양평 갑산공원"이라고 밝혔다.

3일 새벽 2시부터는 유가족과 지인들의 눈물 속에 입관식이 열렸다. 입관식에는 동생 최진영 등 유가족과 전 남편 조성민을 비롯해 이영자, 정선희 등 동료 연예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2일 딸의 죽음에 끝내 흔절했던 고인의 어머니 정모씨는 이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입관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독도 경비대의 24시



지난 1일 경북 울릉군 독도리 동도경비대의 한 초소에서 소총과 실탄으로 무장한 독도경비대원들이 동해 바다를 감시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최근 우리 측 영토를 침범하려는 일본의 야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의 순시선과 어선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우리 측 영해를 제 집 드나들 듯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현재 독도에선 영유권 침탈행위를 놓고 한·일 양측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철통 같은 경계에 나선 독도 지킴이들의 하루를 들여다봤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 日과 총성없는 전쟁

지난 1일 오전 8시30분 경북 울릉군 독도리 동도(해발 98m) 경비대의 한 초소. 소총과 실탄으로 무장한 독도경비대원들의 얼굴엔 굳은 결의가 묻어났다. 서 있기 조차 힘들 정도로 거센 강풍이 불었지만 해안가 경계근무에 투입된 장병들의 모습은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

현재 독도에는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과 전경 46명이 2~3개월씩 순환근무 중이다. 예리한 눈초리로 동해 먼 바다를 감시하던 안태성(22) 상경은 "일본 순시선 등이 우리 측 영해를 자주 침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경비대원 10명이 동도 선착장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관광객들의 안전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독도의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원들에게는 일본으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는 것 외에 자연 유산을 지키는 것도 주요 임무다.

오후가 되자 초소 근무자를 제외한 20명의 대원들이 일본의 좌익단체나 어선 등의 영해 침범을 막기 위한 대응 훈련에 나섰다. 고무보트를 타고 동해로 나가 다른 보트를 저지하는 훈련이었다.

초소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대원 2명은 곧장 휴게실로 향했다. 경계 근무를 마친 이들은 인터넷 게임과 독서, 체력 단련을 하며 자유시간을 보냈다.

과거 군부대의 폐습이었던 구타나 가혹행위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군이 병영 현대화 작업과 함께 폐습 근절에 나선 최근 몇 년 사이 병영의 모습은 크게 바뀌었다.

특히 현대식으로 건립된 최전방 소초들은 냉온방 장치와 널찍한 침대형 내무실, 수세식 화장실, 위생적인 식당은 물론 위성방송 시설까지 갖췄다. 신세대 대원들의 입맛에 맞춰 돼지갈비, 삼계탕, 스파게티가 제공되는 등 식단도 다양해졌다.

독도경비대 강석경(41) 대장은 "해안 경계에는 명절이나 휴일이 없으며 상황이 발생하면 밤을 새우기 일쑤지만 대원들은 우리 땅, 독도를 지킨다는 각오로 똘똘 뭉쳐 있다"면서 "일본의 야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이종행기자 golee@

다음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채직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음주교통사고 허위 조서 40대 전직 경찰관 벌금형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의자를 봐주려 한 40대 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3일 허위 조서를 꾸며 사건을 봐주려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전 광주북부경찰 경사 A(41)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A씨에게 '음주운전 사실은 눈감아 달라'며 스스로 조작한 사진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42)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건강보조식품 둔갑 판매 100억대 챙긴 일당 적발

중국 현지에서 제조한 마약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살 빼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온·오프라인 망을 통해 판매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보안부는 3일 모 건강식품업체 임원 이모(62)씨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고모(43)씨 등 이 업체 유통·판매 담당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PC방 손님 가장해 도둑질

쌍나팔

○…PC방 손님으로 가장해 일부러 컴퓨터를 고장낸 후 주인이 수리하는 사이 금품을 훔친 10대 2명이 경찰에 덜미.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 사이인 M(17)군 등 2명은 지난달 25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동구 모 PC방에서 컴퓨터와 연결된 전선을 일부러 빼놓고 주인이 이를 고치는 사이 친구인 J(17)군이 카운터에서 현금 10만원과 인감도장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훔쳤다는 것.

○…경찰은 PC방에 자주 오는 J군 등이 의심스럽다는 주인의 진술에 따라 조사한 결과 J군으로부터 혐의 내용을 자백받았다고.

○…J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를 벌기 위해 순간적인 실수로 물품을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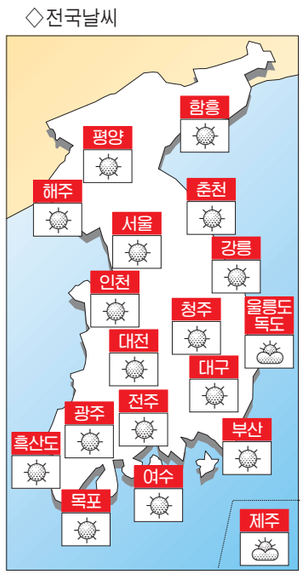
살랑살랑 가을바람

10월 4일 (음 9월 6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14~26℃
목 포	구름 조금	15~25℃
여 수	구름 조금	18~25℃
완 도	구름 조금	15~26℃
구 례	구름 조금	13~27℃
해 남	구름 조금	12~27℃
장 흥	구름 조금	12~27℃
고 흥	구름 조금	13~28℃
순 천	구름 조금	12~27℃
영 광	구름 조금	12~25℃
진 도	구름 조금	13~26℃
전 주	구름 조금	13~25℃
남 원	구름 조금	11~26℃
흑산도	구름 조금	18~22℃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04:20 17:10 썰물 09:34 22:16
여수 밀물 11:30 23:17 썰물 04:46 17:33

▲해뜸 06:29 ▲해짐 18:12 ▲달뜸 11:11 ▲달짐 20:4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일)	6(월)	7(화)	8(수)	9(목)	10(금)
날 씨						
최저/최고	14/26	15/24	13/25	14/25	14/24	13/24

광주·전남 자살률 급증

각각 10만명당 23.6명·21.8명

광주지역 자살률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남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시·도 및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따르면 광주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가 23.6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23.9명)에 비해서는 약간 낮았지만 17.5명에 불과했던 2006년 자살자에 비하면 35%나 급증한 수치다.

그러나 전남의 사정은 조금 달랐다. 2007년 전남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는 21.8명으로 서울(19.6명)과 울산(21.3명) 다음으로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치는 2006년 자살자(20명)에 비해서 9%가 높아진 것이다.

특히 '자살'은 광주지역 사망원인 가운데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번째를 기록했으며, 전남의 경우는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교통사고→당뇨병에 이어 6번째로 많았다.

70~80대에서도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원인 중 자살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70대 외부요인 사망자 수 221.2명중 35.5%인 78.5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했고, 80대 이상에서는 자살자수가 117.3명으로 낙상사고와 함께 외부요인 1위를 다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자살 예방·생명 존중 입법 발의

우울증 등 정부서 지원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3일 범정부적인 자살예방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위기 대응, 자살 발생 또는 미수 이후의 대응 등 단계별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 국가가 국민의 자살시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제정안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신설, 위원회 실무기구인 자살예방대책 실무기획단에서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 실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자살실태 조사를 시행해 발표하고 5년 단위로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세워 성과를 매년 평가받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언론매체의 자살보도 권고지침 마련,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수립, 우울증 등 정신질환 예방.치료, 자살수단 통제, 자살예방 연구 지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자살할 위험이 큰 사람을 조기에 발견, 구조하기 위해 상시출동 체계를 갖춘 광역자살 위기대응팀을 꾸리도록 했고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살 시도자뿐 아니라 자살자 또는 미수자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매년 9월10일을 자살예방의 날, 이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해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했다. /연합뉴스